

2019 DSU LINC+ 캡스톤디자인 FAIR 개최

앞으로도 대학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캡스톤디자인 FAIR에 참여한 학생들의 단체 사진

동서대학교 LINC+사업단은 지난 11월 19일 뉴밀레니엄관 2층에서 '2019 DSU LINC+ 캡스톤디자인 FAIR'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우리 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에 참여한 캡스톤디자인 과제를 중 여러 작품을 전시하여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전시 및 홍보함으로써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서는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79 개의 우수작이 전시되었으며 ▲IT·공학 분야 ▲디자인 분야 ▲인문사회·예체능 분야 총 3개의 분야별로 나누어 작품을 전시하였다. 더불어 프리마켓과 경품 추첨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캡스톤디자인 FAIR에서는 메인 행사인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뿐만 아니라 13개 학부가 개별적으로 학부 특성에 맞는 캡스톤디자인 성과 전시 및 발표회를 학교 각처에서 개최하였다.

올해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에는 1000여 개 팀, 45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행사를 축하하는 개회식에서 장재국 총장은 "LINC+사업단의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은 참여하는 학생 수가 증명하듯, 우리 대학에 완전히 정착되었으며 만들어 보는 make 교육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하며, 대학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LINC+사업단의 조대수 단장은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수요를 통해 캡스톤디자인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에도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학·연·관의 소통을 통해 캡스톤디자인이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의 대상으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의 4학년 학생들의 '다이나미 FC'라는 작품(지도교수: 오중서)이 수상했다. 부산의 한 지적장애인 축구단에 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한 작품이며 장애인들도 비장애인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메시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또한 가질 수 있도록 한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이외에도 최우수상 2팀 '화이트 닷 거즈(White Dot Gauze)', 'TISS', 우수상 6팀 '아토프렌즈', 'air Tray(1인 가구를 위한 DIY 오브제 공기청정기)', '팬스레터(thanks letter)', '푸른색의 정을 담다-자갈치시장 리브랜딩', '행복한 순간들을 잃지 않도록...', 'The feeling of movement', 장려상 10팀 'Feel the baby's feeling', 'What The Hell!', '현신의 집', 'Stand By', 'Urban REC', '다: 피크닉', '숨바꼭질', '아카미', '자동으로 비밀번호가 바뀌는 도어락', '근전도와 심전도를 활용한 손목 피로도 측정 마우스', 특선 10팀 'Visual Arts Speaker', 'JIN MOOD', '악몽(fear of dark)', 'Flowing me', '위메프와 쿠팡의 비교 분석 및 성공전략', 'Magic Words(고마워요, 미안해요, 부탁드려요.)', '불법주차와의 전쟁', '수상 레포트 한바탕', 'Wendy ~ Dear friend~', '추억의 담벼락, 마비정' 등 총 20팀이 수상하였다.

한편 이날 동서대 주례 캠퍼스와 해운대 센텀 캠퍼스에서는 '2019년 학술 엑스포'가 펼쳐졌으며 우리 대학 학생들은 교수들의 지도를 받아 불철주야 갈고닦은 실력을

해당 행사에서 유감없이 뽐내었다. 학생들은 각 학부에서 다양한 형태로 그들의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건축토목공학부(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축·토목 구조물 공모전) ▲관광학부(2019 Tourism Campus Fair) ▲국제통상물류학부(2019 국제통상물류학부 학술엑스포) ▲글로벌경영학부(Biz Challenger·DAIP 보고회 및 연구회 활동발표대회) ▲레포트과학부(경호전공 학술세미나, 2019 Sports Concert, 신체의 이해와 건강함 토크 만들기)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SCOPE Expo)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Media Degree Show) ▲보건의료계열(보건의료계열 학술교류-전공체험 페스티벌) ▲사회복지학부(제4회 사회복지학전공 연구회 연합학술제, 청소년을 위한 진로검사 Day) ▲외국어계열(해외연수참가 체험기 발표회, 일본어 원어언급 Good Luck, 한중 대학생 및 고교생 연합 중국고전시가 낭송) ▲임권택영화예술대학(전공별 체험부스 운영) ▲화학공학부(화학공학부 연구회 발표회, 제8회 식품영양학과 학술제)

박효진 기자
pahyork@gmail.com

상상씨앗 공모전 시상식 가져

신구의 조화 팀 총장상 수상



▶상상씨앗 공모전 시상식 기념사진

동서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는 11월 5일 UIT관 6층 국제세미나실에서 '2019 세상을 바꾸는 상상씨앗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해당 공모전은 학생들의 창의적 발상 능력 향상과 과학적 해결을 요하는 융합적 아이디어 구현 능력의 증대를 위해 공학교육혁신센터 주최로 매년 열고 있다.

상상씨앗 공모전에 총 25개 팀이 응모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로 16개 팀이 선발되었고 2차 탈락 발표회를 거쳐 11월 5일 최종 수상자 발표와 함께 시상식이 개최된 것이다.

상상씨앗 공모전의 총상금은 1250만 원에 이르며 상금 300만 원의 총장상(1등)은 보수동 책방골목 지역재생 아이디어를 낸 신구의 조화 팀이 수상하게 되었다. 신구의 조화 팀은 디자인학부 김수현·정소영·김혜진, 컴퓨터공학부 허자운 등 4명의 재학생으로 구성된 팀이다.

이에 총장상을 수상한 신구의 조화 팀을 만나 다음과 같은 소감을 들어보았다.

김수현 학생은 "우리의 아이디어는 무엇보다도 보수동 책방골목이 하나의 지속 가능한 관광명소로 자리 잡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고 많은 시간에 걸쳐 자세히 조사 및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실제 보수동 책방골목에 필요한 아이디어가 무엇일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분석 끝에 문학자판 기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팀원

간의 팀워크와 역할 분배가 제대로 되어 팀원 모두 즐겁게 일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다양한 공모전을 참가하여 더욱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에 도전하여 자신을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정소영 학생은 "처음 나간 공모전에서 1등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해서 너무 신기하고 기뻐요. 학기 중에 과제가 많아서 중간에 포기할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끝까지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조원들 모두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김혜진 학생은 "우선 우연히 학교 포스터를 통해 공모전을 보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 너무 뿌듯하다. 지역재생이라는 카테고리도 평소 해오던 서비스 디자인이라서 잘 적응시켜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고 디자인적 사고와 공대 계열의 시스템적 측면을 함께 융합시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적이 처음이라 색다르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된 것 같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허자운 학생은 "이번 상상씨앗 공모전을 통해서 팀원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힘들었던 점도 정말 많았지만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행복하다. 또 좋은 기회가 생긴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박효진 기자
pahyork@gmail.com

리투아니아 외무부 초청받아 국제컨퍼런스 참가

한국과 리투아니아를 잇는 교육 및 문화 교류에 큰 보람 느껴



▶국제컨퍼런스에서의 단체 사진

장재국 동서대 총장은 리투아니아 외무부의 초청을 받아 국제컨퍼런스에 참가하였다.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국제컨퍼런스가 개최되었으며 우리 대학과 자매대학인 미콜라스 로메리스대학교와 국제협력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한척호 국제처장과 함께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했다.

리투아니아 외무부에서는 국제컨퍼런스의 주제를 'Pivot to Asia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로 하였고 장재국 총장은 본 행사에서 'The World in Transition : Moving toward New Normal'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하였다.

이날 국제컨퍼런스에서는 리투아니아 대

통령과 외무부 장관 등의 인사말이 있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유럽과 아시아 간 다양한 협력 방안에 관해 토론했었다.

장재국 총장은 리투아니아 A. Monkevicius 교육부 장관을 만나 리투아니아와 한국 고등교육기관들 간의 교류와 협력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다양한 방식의 교류 협력을 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장 총장은 본교와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는 미콜라스 로메리스 대학도 방문하여 총장을 비롯한 보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양 대학이 공동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분야 2+2 복수 학사학위과정 외에 다양한 방식의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대학

이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빌뉴스 세종학당도 방문하여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는 리투아니아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에 장 총장은 "아시아 전략에 관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만큼 리투아니아에서 향후 세계 정치·경제를 이끌어갈 아시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시아와의 교류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동서대가 2014년 최초로 발트해 지역 리투아니아의 명문 미콜라스 로메리스대학교 공동 교육과정 등으로 활발히 교류하면서, 한국과 리투아니아를 잇는 고등교육 및 문화 교류에 앞장서고 있다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박효진 기자
pahyork@gmail.com

K-MOVE 스쿨 사업에 선정되다

전국 4년제 대학 중 최대 규모 운영



▶2019 K-MOVE 스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단체 사진

동서대학교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K-MOVE 스쿨을 통해 총 439명의 학생들을 해외에 보내 글로벌 무대서 실무를 익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차범 해외인턴·해외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K-MOVE 스쿨(해외취업 연수사업)에 상반기 3개 과정, 하반기 2개 과정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K-MOVE 스쿨은 글로벌기업, 해외 진출 기업, 해외 유망직종 등에 취업 연계를 위해 맞춤형 연수과정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기 연수를 진행할 경우에는 최대 지원금 8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단기 연수를 진행할 경우에는 최대 58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동서대학교는 지난 상반기에 미국 산업 그래픽디자인어 양성과정, 미국 IT 엔지니어 양성과정, 일본 IT 엔지니어 양성과정이 선정되어 현재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2019년도 하반기 K-MOVE 스쿨에 선정된 것은 미국 패션 스페셜리스트 양성과정과 미국 무역물류 프리터어 양성과정이며 교육인원은 40명이다.

상·하반기 모두 선진국 유망 업종의 과정들이 선정된 것에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다. 이로써 동서대학교는 전국 4년제 대학 중 최대 규모의 K-MOVE 스쿨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우리 대학 학생들의 해외 취업 문은 더 활짝 열리게 된다.

이와 같은 해외인턴 및 해외취업에 큰 실적을 쌓은 공로로 2013년 교육부 장관상, 2015년 노동부 장관상, 2016년 국무총리 상을 수상하였다.

박준식 학생취업지원처장은 "우리 대학은 진로교육, 국내외 취·창업교육 및 청년 고용정책 홍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대학 일자리 센터 사업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해외취업에 대한 동기부여 및 맞춤형 전문 교육을 실시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더 많은 나라에 우리 학생들을 보내 해외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효진 기자
pahyork@gmail.com

2019 독서토론회 개최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적 표현력 함양



▶2019 독서토론회 진행 모습

지난 19일, 민석 교양대학에서 ‘2019 독서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적 표현력 함양을 위해 개최된 ‘2019 독서토론회’는 동서대학교 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3인 1조로, 팀별로 토론하는 방식이다. 접수는 9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받았으며, 36팀(109명)이 신청하였다. 이들 중 서류심사(토론전락서)를 통과한 8팀(24명)만이 19일에 개최된 ‘2019 독서토론회’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다. 토론문서는 ‘초예측’ 유발하라리, 재레드 다이아몬드 외, 동진지식하우스(2019)이며 토론 논제는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간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이다. 토론은 CEDA (Cross Examanation Debate Association)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CEDA 토론은 ‘교차 질문형 토론’으로 2인 1조로 구성된 팀별 토론자들이 각각 입론, 교차 질문 및 반론, 최종 발언을 통한 아카데미식 토론 방식이다. ① 찬성 1팀(입론 1, 3분) 찬성 팀에서 주장하는 핵심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여 제시, 찬성

하는 입장의 논점을 제시하고, 분명하고 명료한 근거 제시 ② 반대 2팀(교차 질문, 4분) 논제에 대한 찬성하는 이유가 타당한지 집중적으로 질문, 찬성 팀이 짧게 답변하도록 질문하고, 입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논점은 질문하지 않음 ③ 반대 1팀(입론 1, 3분) 논제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들고, 핵심 개념을 제시, 논제에 대해 반대하는 근거 제시 ④ 찬성 2팀(교차 질문, 4분) 찬성 입장에서 ②와 같은 요령으로 질문 ⑤ 찬성 2팀(입론 2, 3분) 찬성 팀 입론과 연계성이 있으면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논점과 논거를 제시 ⑥ 반대 1팀(교차 질문, 4분) 반대 입장에서 ②와 같은 요령으로 질문 ⑦ 반대 2팀(입론 2, 3분) ⑤와 마찬가지로 반대 팀 값이 다르지 않은 다른 논점과 근거를 제시 ⑧찬성 1팀(교차 질문, 4분) 찬성 입장에서 ⑥과 같은 요령으로 질문 ⑨ 반대 1팀(반론, 2분) 찬성 팀의 논점이 지닌 문제점 및 논점의 근거 중 타당성이 약한 점을 반박하면서 자신의 논점이 정당함을 주장 ⑩ 찬

성 1팀(반론, 2분) ⑨와 동일 ⑪ 반대 2팀(최종 발언, 2분) 해결방안이나 대체 방안을 제시하여 찬성 팀의 논점이 약하고 반대 팀의 논점이 강하다는 점을 주장 ⑫ 찬성 2팀(최종 발언, 2분) 반대 팀이 다루지 못한 논점을 지적하고, 대체 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약함을 입증.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④ 찬성 2팀(교차 질문, 4분)이 끝난 후 한번, 그리고 ⑧ 찬성 1팀(교차 질문, 4분)이 끝난 후 한번, 토론에 참여한 팀들은 총 두 번의 작전타임(3분)을 가졌다.

CEDA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AI스타’, ‘배로돌려줄게’팀이 준결승에 진출하였으며, ‘배로돌려줄게’팀이 우승하였다. 김지영 교수, 김순아 교수, 이재영 교수, 정규희 교수가 ‘2019 독서토론회’의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였다. 토론 심사 기준은 논증 능력(40), 표현능력(20), 팀워크(10), 태도(10), 토론도서 활용(20)이다. 최우수상 1팀에게는 60만 원이 수상되었으며 우수상 2팀에게는 30만 원, 장려상 3팀

에게는 15만 원, 굿메너상 2팀에게 10만 원을 부상 받았다.

‘2019 독서토론회’를 개최한 동서대학교 민석교양대학은 ▲THE ONLY ONE 가치 구현의 학습인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갖춘 탐구인 ▲협업과 소통력을 갖춘 보편적 지식인 ▲글로벌 시민의식을 지닌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류에 봉사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인문사회분야(문화·역사·철학), 과학기술분야(기초과학·S/W·ICT), 문화예술분야(예술·융합·창의), 글로벌분야(외국어·글로벌소양)등 다양한 분야에 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서대학교 민석교양대학에서는 10월에 ‘2019 독서토론회’를 비롯하여, ‘2019 섬김리더십 인증제’, ‘2019 도전! 글로벌 골든벨’을 개최하였으며, 학생이 듣고 싶은 교양강좌 개발 프로그램 ‘Liberal Arts Festival’ 등을 진행하였다.

김민경 기자
 rudvmfhelxp@gmail.com

DSU ART SHOP OPEN

동서대학교 UI 상품들을 만나다



▶ART SHOP OPEN CEREMONY

동서대학교 아트샵이 11월 20일 오픈했다. 이곳에서는 우리 대학의 공식적인 UI (University Identity)를 담은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아트샵은 우리 대학의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수혜기업인 모다라(대표 조진욱·동서대 패션디자인학과 겸임교수)와 협업해 기념품을 판매한다. 이곳은 ▲동서대 기념품 존 ▲학생 창업 작품 전시 존 ▲부산·한국 관광 기념품 존 ▲원스톱 창업상담창구 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DSU 아트샵에서 전시·판매되는 상품은 디자인대학 학생들과 모다라 기업 간 공동 프로젝트 통해 건축 이념, 교화, 교육 등이 연관 지어져 ▲기획 ▲제작 ▲테스트 ▲판매 ▲사업화 단계를 거쳐 제작, 탄생한다. 그중 캐릭터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학교기업 ‘애니모션’과 캐릭터를 공동 개발했다. 캐릭터는 다섯으로 아토, 아몽, 아로, 아피, 푸이다.

단순한 제작과 판매가 아닌 공간 기반 체험활동을 통해 재학생과 아이템 창업의 접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창업을 희망하는 재학생들에게 기념품 제작 및 판매 경험을 통해 시장 반응 확인과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후 ‘DSU 기념품 공모전’, ‘DSU 온라인 아트샵’ 등을 통해 동서대학교 자체 브랜드 홍보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DSU 아트샵을 방문한 광고홍보학과 3학년 이화영 학생은 “스튜던트 플라자를 지나가거나 필요에 의해 들리게 되었을 때 학교 곳곳이 전시되어 있던 장소의 불이 항상 꺼져있어서 의아했었다. 저곳의 불이 언제 켜질지가 궁금했었는데 개최식을 통해 방문해보게 되었다. 한국의 맛이 잘 드러난 상품들과 한글, 영어가 섞인 상품들이 널리 판매되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빛을 보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생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장재국 총장은 “DSU 아트샵 설립이 우리 대학의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재학생의 아이디어와 아이템이 판매 및 사업화까지 연결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아트샵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대향 기자
 hyangsun3311@gmail.com

‘2019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120명 이상 채용 예정, 일자리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



▶2019 청년 채용박람회 진행 사진

지난 7일, 동서대학교 학생 취업지원처는 교내 스튜던트 플라자에서 ‘2019 청년 채용박람회’가 개최하였다. 해당 ‘2019 청년 채용박람회’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청년들이 참가하였다.

‘2019 청년 채용박람회’에는 부산시공단, 비엔스틸라, 동우 알앤에스, 동신 모텍 부산공장,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유니온, 지오 지에스 주식회사, 지패션 코리아, 경성산업, 엔젤, 나라 코퍼레이션, 파나시아, 토탈 소프트뱅크, 아인 텔레서비스 (LG유플러스 모바일 고객센터), 한국비즈 지원센터 등 부산·경남지역의 16개 기업이 참가했다. 또한 힐 엔지니어링, 농심 부산공장, 크린텍, 슈퍼셀, 서브 원, 한가람 종합건설, 우성전공기술, 지성 스틸, 국도 화인켐, 세종 디자인, 해동 엔지니어링, 동심 컴퍼니, 크로노그래프 주식회사, 주식회사 비즈 닉스, 부영 CST, 농심 부산공장 등 13개의 회사가 간접 참여했다. 이날 청년 채용박람회에서는 지역 기업 인사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 면접이 진행되었으며 기업설명회, 대학생 청

년고용정책인지도 조사 등도 마련됐다. 부대행사로는 적성검사, VR 면접, 이력서 채용박람회’가 개최하였다. 해당 ‘2019 청년 채용박람회’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청년들이 참가하였다.

행사 참가는 행사장 양 끝에 위치한 성명, 전화번호, 희망 근무지역, 희망직종, 희망임금, 희망 입사 형태, 희망 직무내용 등을 적을 수 있는 참가 신청서 작성대에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행사장 내 안내부스에서 제출·박람회 리플렛 수령 후, 참가기업 면접 및 부대행사에 참가하는 순으로 이루어졌다. 행사 공간 중앙에는 대학생 청년고용정책 인지도 조사를 위한 패널이 비치됐다. 패널에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직업진로지도 서비스·강소기업 탐방·중소기업 취업연수 지원·대학 일자리센터·일학습 병행제·K-MOVE 등에 대해 알고 있는지, 향후 청년고용정책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만약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공공기관 채용형인턴·직업진로지도 서비스·강소기업 탐방·중소 기업 취업연수 지원·대

학 일자리 센터·일 학습 병행제·K-MOVE 중 어떠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지, 청년고용정책의 관심분야는 일자리·창업·주거·학자금·문화·생활·복지 중 어떤 것인지, 청년고용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 대학 일자리 센터를 통한 홍보·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대학, 고용노동부, 워크넷)·홍보 포스터·학생홍보대사·유튜브(영상매체) 중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이 적혀있었으며, 청년 채용박람회에 참여한 청년층이 직접 투표하였다. 더불어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패널 또한 비치되었다.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은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일 때 참여할 수 있으며(고교생 및 대학 재학생을 포함하며, 대학은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재학생 40% 이상 선별 우선), 학력은 제한되지 않는다.(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 해당 프로그램에는 청년 자신이 희망하는 산업분야에 대한 맞춤형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청년 친화 강소기업, 강소기업(고용부 선정), 우수 벤처기업(벤처기업협회 선정), 우수 중소기업(중

소 벤처기업부, 이노비즈협회 선정)과 혁신성장 동력 산업분야의 혜택이 주어진다. 프로그램 일수 별 최소 기업 현장 체험 시간은 1일(6시간 이상/ 현장체험학습시간 2시간 이상), 2일(14~16시간 이상, 현장체험학습시간 3시간 이상), 3일(21~24시간 이상, 현장체험학습시간 5시간 이상), 4일(28~32시간 이상, 현장체험학습시간 7시간 이상), 5일(35~40시간 이상, 현장체험학습시간 8시간 이상)이다. 또한 2019 청년 채용박람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스탬프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각 해당 부스에서 미션을 수행하고 스탬프 3개 이상 획득 시 커피 쿠폰이 증정되었으며, 선착순 200명에게 기념품이 증정되었다.

이번 채용박람회에서는 기업들이 120여명 이상을 직접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준식 대학 일자리 센터장은 “이번에 꽤 많은 인원을 채용하게 되므로 미리 입사 지원서를 준비해 박람회 현장에서 지원한 학생들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경기자
 rudvmfhelxp@gmail.com

3DFC Art Festival 개최

동서대 디지털콘텐츠학부 참여



▶제1회 3DFC(융합센터) Art Festival 단체사진

지난 4일, 동서대 센텀캠퍼스 소량뮤지컬씨어터에서 ‘제1회 3DFC(융합센터) Art Festival’을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LINC+사업단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LINC+사업단은 동서대학교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산학협력 고도 화형) 단은 영화·영상, 디지털콘텐츠, IT 융합, 디자인을 4대 중점분야로 국내 최고의 특성화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다.

LINC+사업단의 비전은 특성화 분야 세계적 수준의 산학협력 모델 대학이며, LINC+사업단은 문화콘텐츠 1st CLASS 산학협력 선도대학 (Culture-contents 분야, LEGO 기반+Assembly 산학교육+Sharing 산학 공유, Social-contribution 지역사회 기여)을 목표로 잡고, 산학협력 기반 고도화 (LEGO 운영 지표 10% 향상)·특성화 분야 중심 사회 맞춤형 인재 양성 (취업률 지표 10% 향상, DSU 산학교육 브랜드 지표 10% 향상)·지역 산업 발전 및 혁신 선도 (가족회사 성장지표 10% 향상)을 이루어 내고 있다. LINC+사업단은 9대 추진전략이 있는데, 크게 InfraStructure, 산학 기반·Internal Action, 산학교육·External Action, 산학 연계로 나누며, 제1회 3DFC(융합센터)

Art Festival은 External Action, 산학연계 중에서 전략 9 문화콘텐츠 지역공헌 시스템 (센텀캠퍼스, 문화콘텐츠 중심)에 해당된다. 제1회 3DFC(융합센터) Art Festival에서는 ▲재학생들과 현 산업 실무자들과의 취업 간담회 ▲2D·3D 분야를 아우르는 학생들의 다양한 영상·아트 작품 전시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로 직접 창작 디자인한 힐링템(굿즈) 판매 행사가 있었다.

이번 제1회 3DFC(융합센터) Art Festival에서는 디지털콘텐츠학부 학생들에게 학업의 장을 넘어 아트 축제를 통해 창의 정신을 고취하고 콘텐츠 산업에 대한 흥미와 학습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개최됐다. 장재국 총장은 이날 “우리 대학은 디지털콘텐츠학부를 특성화 학부로 지정한 뒤 집중 육성해 왔다. 게임 RIC 사업, CK 대학 특성화 사업 등의 수주를 통해 한강 이남 최고의 명성을 얻었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지정받아 6년간 정부 지원을 받게 되었다. 우리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보니 이제기 최고의 산업으로 발전해나갈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중심에 설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김민경기자
 rudvmfhelxp@gmail.com

DSU 해외취업지원 사업

해외에서 청춘의 꿈을 펼치다



▶대학 일자리 센터 홍보 슬로건

동서대학교 학생 취업지원처 해외취업지원팀에서 11월 15일 금요일까지 “DSU 해외취업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했다. 다양한 나라, 다양한 분야에서 청춘의 꿈을 펼치고 싶은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

모집 분야의 국가는 미국, 일본, ASEAN(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기타 국가가 있다. 지원 자격은 2019년 8월 졸업자 및 2020년 2월 졸업예정자이다.

미국은 무역, 물류, 금융, 회계, 신문, 방송, 관광, IT, 디자인 등의 분야로 15명의 인원을 모집하며 관련 전공으로는 상경 계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계열, 이공계열, 관광학부, 디자인대학을 뽑는다.

일본은 무역, 물류, 마케팅, 항공, 호텔 서비스, IT 엔지니어 등의 분야로 10명의 인원을 모집하며 전공 무관 및 이공계열의 학생을 모집한다. 또한, 일어 능력 우수자를 우대한다.

ASEAN(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의 모집 분야는 제조, 무역, 물류, 마케팅, IT, 기계, 디자인, 건축, 토목, 관광 등으로 10명의 인원을 모집하며 전공 무관으로 영어

능력 우수자를 우대한다.

기타 국가는 분야 무관, 전공 무관하게 5명의 인원을 모집하여 국가 별 모집인원 총합은 40명이다.

국가별 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국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일할 수 있는 국가라면 어디나 가능하다. 단, 관광비자 및 학생비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국가별로 교육 프로그램 또한 상이하다. 미국의 교육내용은 인터뷰 영어 및 미국 취업상식이다. 일본과 ASEAN의 교육내용은 국내 교육과 국외 교육으로 분리되는 데 일본의 국내 교육은 일본어 회화, 일본 취업상식이며 국외 교육은 비즈니스 영어, 일본 기업탐방을 행한다. ASEAN의 국내 교육은 토익, 해외취업상식을 하며 국외 교육으로는 현지 언어와 기업탐방을 실행한다. 기타 국가에서도 비즈니스 영어 교육과 해외취업상식을 교육받는다.

추진일정은 모집 기간이 연장되면서 변동되었다. 이 사업은 ▲참가자 모집 ▲면접 ▲합격자 발표 ▲국내 교육 ▲국외 교육(일본

과 ASEAN) 순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참가자 혜택으로는 전 국가의 국내 교육비 전액이 무료로 지급된다. 미국은 이에 더불어 비자 수수료가 일부 지원된다. 본인 부담금으로는 비자 수수료 및 취업관리비 약 350만 원과 비자 인지대, 항공료를 지불해야 한다. 일본과 ASEAN은 현지 교육비가 전액 무료이며 현지 교육기간 중 기숙사비 전액 무료, 항공료 및 체제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다. 기타 국가도 취업 시 항공료 및 체제비를 일부 지원해준다. 모두 본인 부담금으로 교육 참가비 및 취업관리비 50여만 원이 요구된다. 이에 더불어 전체 국가의 공통사항으로 해외 취업 절차 지원금 400만 원이 신청 가능하며, 해외 취업 수기 및 영상 공모전 우수상 상금이 지급된다. 위 사항은 월드잡 회원 가입 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가능하다.

글로벌 시대에 해외로 뻗어나가 청춘의 꿈을 펼칠 동서대 학생들의 모습이 기대된다.

김태향 기자
hyangsunsun331@gmail.com

■ 학과별 Q&A 인터뷰

광고홍보학과 그것이 알고 싶다

Q.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홍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17학번 김진영입니다.

Q. 이번에 광고·PR 전공에서 광고홍보학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저희 전공은 PR 덕분에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이름이라 굉장히 자랑스러웠는데 바뀐다고 하니 섭섭하고 아쉬워요. 이름에 PR이 빠진다고 해서 PR을 배우지 않는 것이 아니니 한편으로는 다행이 고요!

Q. 광고홍보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A. 광고홍보학과는 광고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습을 배우고 익히는 학과입니다. 동서대학교 광고홍보학과는 광고 제작뿐만 아니라 광고에서는 물론 현대사회에서도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크리에이티브 능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실습수업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광고홍보학과만의 특별한 점이 있나요?

A. 동서대 광고홍보학과는 ‘실무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광고계를 ‘현장’이라고 많이들 표현하시는데요, 현장은 역동적이며 순발력과 체력 등이 요구됩니다. 때문에 사회에 진출했을 때 현장에 빨리 적응하여 능력을 올릴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미리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 실무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습의 가장 대표적인 수업이 바로 ‘IFS(In-school Field Study)’인데요, IFS는 이름 그대로 교내에서 실시하는 현장 교육입니다. 광고홍보학과는 IMC, PR, 크리에이티브 세 본부로 나뉘며 자신이 선택한 본부에서 팀을 꾸려 한 학

기 동안 과제가 아닌 업무를 수행합니다. 직접 기업 또는 관공서와 접촉하여 미팅을 하고, 업무를 받아 수행하여 결과물을 제작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현장을 몸소 느끼고 다양한 결과물을 제작하며 실력을 쌓는 것은 물론 포트폴리오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Q. 광고홍보학과와 자랑거리를 말해주세요!

A. 앞서 말씀드릴 IFS 수업과 연관지어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 미디어 학부에는 ‘미디어 아웃렛’이 있습니다. IFS 수업에서는 교수님은 본부장님, 학생들은 사원이기 때문에 학교 안의 작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디어 아웃렛 내에서 IFS 수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업무보고와 회의가 진행됩니다.

또한 학과 특성상 과제가 많고 밤샘이 잦기 때문에 마음 놓고 과제할 수 있는 공간과 편한히 쉴 수 있도록 침대와 작은 도서관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아웃렛은 오직 미디어학부 학생들만의 공간이며 전국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물론 학생들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Q. 광고홍보학과 학생이라면 ‘이것만은 필수다’ 하는 점이 있나요?

A. 저는 어도비 프로그램을 다루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서대 광고홍보학과에서는 2학년이 되면 인쇄 편집 실습과 영상 편집 실습을 배우게 됩니다. 광고도 비주얼로 표현되는 것이기에 ‘감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틀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만 그 외의 디자인과 미적 감각은 개인이 노력하여 습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보고, 시도할수록 실력이 늘기 때문에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은 취업 전에 반드시 마스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Q. 졸업한 후 취직은 어떤 곳에 하게

되나요?

A. 크게 홍보, 마케팅, 프로덕션, 대행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큰 병원이나 기업에서 전반적인 마케팅 또는 홍보를 담당하거나, 광고대행사, 광고를 제작하는 프로덕션 등에 취직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광고는 여러 분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취직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관심사에 따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광고홍보학과에 오면 ‘이것만은 각오해야 한다’ 하는 것이 있을까요?

A. 광고홍보학과에 오시면 일단 엄청난 양의 과제가 있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광고홍보학과 특성상 조별 과제가 굉장히 많은데 한 학기에 4~5개 정도의 조별 과제가 있어요. 거기에 교양수업도 들으면 어마어마해집니다.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과제를 진행하면 되니 너무 겁나지는 마세요!

Q. 학과에서 있었던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말해주세요!

A. 저희 학과는 매년 학과 MT를 하는데요, 올해 MT는 교수님들도 참석해주셔서 같이 뽀로로 말해요 등의 게임을 하며 즐겼답니다! 교수님들이 다들 젊고 재미있어서 학생들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치킨도 사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웃음)

Q. 마지막으로 미래 카피라이터로써 광고홍보로 4행시 하며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A. 광고 스낵 하지 마세요.
고 민해서 만든 거니까,
홍 (흔)합니다.
보 고 또 보고 싶은 동서대 광홍이
만든 광고!
감사합니다.

김태향 기자

hyangsunsun331@gmail.com

‘2019 도전! 글로벌 골든벨’ 열려

글로벌 시사 상식 겨뤄



▶글로벌 골든벨 진행 모습

지난 19일, 민석 도서관 다목적 세미나실에서 민석 교양대학에서 주최한 ‘2019 도전! 글로벌 골든벨’이 개최되었다. ‘2019 도전! 글로벌 골든벨’은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작된 비교과 프로그램이다. MYDEX ‘도전! 골든벨’ 신청서를 통해 선착순 150명을 받았으며, 신청한 학생은 총 120명이다. 글로벌 마인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글로벌 시사상식 연구소 편지 ▲시대고시기획) 300여 문제가 출제되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유쾌한 상식사전 ▲과학·일상생활 ▲꽃 껌 상식 퀴즈 ▲시사상식 연구소 편지 ▲시대고시기획) 300여 문제가 출제되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유쾌한 상식사전 (일상생활 편)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과연 진짜일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해, 수많은 책과 각종 연구 자료, 신문 등을 파헤쳐 엮은 오리지널 상식의 유래와 역사를 담은 책이다.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지거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수많은 내용을 한 권에 담을 수 없기에, 시리즈 중 첫 번째로 ‘일상생활 편’을 엮었다. 인류가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로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의(依), 식(食), 주(住), 그리고 오락적 신체 활동에서 발전한 스포츠

(sports) 분야의 까자 오리지널 상식을 분석했다. 애니메이션 영화 ‘알라딘’에서 주인공 알라딘은 원래 중국 사람이며,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는 원래 프랑스 쿠베르탱의 남작이 아니라 영국인 윌리엄 브룩스 박사였다.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남녀 모두가 즐겨 입는 체크무늬 치마, 킷스는 사실 스코틀랜드 전통 의상이 아니라는 것 등, 수많은 사람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지식의 반전 스토리가 담겨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유쾌한 상식사전 (과학·경제)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과연 진짜일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해, 수많은 책과 각종 연구 자료, 신문 등을 파헤쳐 엮은 오리지널 상식의 유래와 역사를 담은 책이다.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지거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수많은 상식 중 두 번째로, 하늘과 땅, 우주와 별자리, 시간과 공간, 교통과 경제, 과학 기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요하네스 케플러를 천체물리학자로 탄생시킨 덴마크의 티코 브라헤 이야기, 조선의 통역사이자 홍보대사였던, 호기심 대마왕 천체 관측 학자 미국의 퍼시벌 로웰 이야기, 무슬림들이 30년마다 우리보다 한 살 더 먹는 이유가 담겨 있다. 우리 역사



▶글로벌 골든벨 단체사진

에서 공식적으로 ‘고려’ 왕조가 세 번 있었으며, 조선도 한때 국호가 ‘고려’가 될 뻔했던 이야기, 경제용어 ‘상인(商人)’, ‘상업(商業)’이 중국의 나라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사실, 동양에서 9, 서양에서 13이 불길한 숫자로 여겨지는 이유, 천문과 시간, 지리와 공간, 교통과 경제 등 수많은 분야가 책에 담겨 있다.

출제된 문제는 문제은행 형식으로, 신청한 학생 120명에게 MYDEX ‘예상문제 다운로드’를 통해 미리 배포되었다. 문제는 OX 퀴즈 (상종하 각 10문제 : 총 30문제), 주관식 퀴즈 (상종하 각 10문제 : 총 30문제), 패자부활전 5문제, 골든벨 3문제 (배부되지 않은 범위에서 출제)로 이루어졌다. 참가한 80명의 학생들 중, 단 하루 만에 OX 퀴즈를 통해 선발되었다. 해당 과정에서 미리 배부된 문제를 열심히 공부해온 학생들이 덕분에 판결이 가려지지 않아 배포되지 않은 물발문제를 출제하여 40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OX 퀴즈와 물발문제를 통해 선발된 40명의 학생은 주관식 퀴즈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해온 덕분에 준비한 68문제를 모두 출제하고도 최종 1인이 선발되지 않아, 미리 배포했던 문제은행에

서 문제를 무작위로 출제하였고 이후 최종 1인이 선발되었다. OX 퀴즈, 주관식 퀴즈, 물발 퀴즈 등 다양한 퀴즈를 통해 국제통상 물류학부 국제통상학과 4학년 김수진 학생이 최종 1인으로 선발되었다. 최종 2인까지 올라간 글로벌경영학부 경영학과 1학년 김경은 학생은 아쉽게 2위를 차지하였다. ‘2019 도전! 글로벌 골든벨’에 1등을 한 한 명의 학생에게는 50만 원, 2등 한 명의 학생에게는 30만 원, 3등을 한 세 명의 학생들에게는 각 20만 원, 4등을 한 네 명의 학생들에게는 각 10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되었다. 또한 참가한 학생 모두에게 기념품 (우산)이 지급되었다. ‘2019 도전! 글로벌 골든벨’을 준비한 이 동은 민석 교양대학 교학부장, 정혜영 대회 담당 교수를 비롯하여 준비한 직원들 모두 학생들의 수준과 능력에 감탄하였으며, 다음 대회 때는 문제 수준을 더욱 높일 예정임을 알렸다. 박성미 민석 교양대학장은 ‘골든벨이라는 형식으로 재미를 통해 평소 접하기 힘든 시사 상식의 폭을 넓히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rudvmfheixp@gmail.com

2019 International Culture Night 개최

다국적 문화를 공유하다



▶2019 International Culture Night 참가 학생 단체사진

11월 22일 오후 6시 동서대학교 뉴 밀레니엄 2층 소향아트홀에서 ‘2019 International Culture Night’ 행사가 개최됐다. 우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전담 단과 대학인 International College가 주관한 행사로 이날 참가한 다국적 학생들은 문화를 공유하고 우정을 쌓았다.

동서대학교의 해외 유학생들의 입학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64개국 1100여 명에 달했고, 2019년 현재 12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2020년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인원을 1500명으로 높이기 위한 유치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GSI는 ▲동서대 학생으로서 소속감과 유대감 조성 ▲학생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으로 조화를 모색하는 동서인 육성 ▲동서대 유학에 대한 매력 제고 ▲GSI의 다양한 비교과 활동 및 졸업 후 동문회 조직 다듬기 형성을 위해 국제문화의 밤(International Culture Night) 행사를 갖게 됐다.

국제문화의 밤은 2015년부터 시행된 다국적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행사로 현재 5번째 행사를 맞이했다. 올해 행사는 외국인(학부 및 대학원, 어학연수생)·한국인 학생 300여 명이 참가하여 대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일본 경제대학 초청 무대, 국가별 문화공연, 참가자 간단담 및 사인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가한 학생들의 국적은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멕시코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다양하다. 국가별 문화공연에서 학생들은 개별 국가 팀 혹은 혼합 국가 팀으로 참가해 전통춤, 노래, 연주 등을 선사했다.

베트남 학생들은 전통 무용,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노래와 춤, 인도 팀은 ‘Bollywood Dance’를 선보여 감동을 받았다. 중국 학생들은 ‘몽골리안 댄스(Mongolian Dance)’와 ‘옥인무(玉人舞)’를 공연했다. 필리핀 팀은 춤과 음악, 멕시코 팀은 음악,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은 피아노 연주와 노래를 공연했다. 각 문화의 음악과 아름다운 선율, 전통적인 춤들로 여러 나라의 특색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일본 연합 팀과 인도네시아·베트남 연합팀, 한국 학생들은 K-Pop 공연을 선사했다. 한국인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연합하여 이룬 무대로 인해 서로의 화합을 이끌어 냈다.

국가별 문화공연이 끝난 뒤 객석에 있던 학생들은 모두 무대로 올라와 춤과 음악으로 공동 무대를 연출하였다. 이후 참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모여 단체 기념사진을 남기며 국제 문화의 밤 행사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김태향 기자

hyangsunsun331@gmail.com

책 속의 풍경

마음의 병은 곧 몸의 병이다



- 책 제목 : 나는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 책 저자 : 안경희
- 출판사 : 새움

타인에게 건네는 따스한 말이 제목인 이 책은 조울병을 겪은 한 의사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담긴 에세이다. 흔히들 우리는 ‘조울증’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증’은 일시적인 증상의 뇌양상과 강하게 때문에 책에선 공식 의학용어를 따라 ‘조울병’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작가는 조울병으로 인해 겪었던 ‘사회적 자살’을 이야기하며 조울병은 마음의 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약물치료가 필요함 몸의 병임을 알려주어 치료에 거부감을 줄이고자 노력한다.

조울병이란 기분이 유쾌하고 들뜬 상태인 조증과 기분이 저조하고 가라앉은 상태인 우울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병이다. 조증이나 우울증 사이에 정상적인 기분 상태로 지내는 기간도 존재하나, 조증과 우울증은 기분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이상 상태인 증상을 가리키기에 이 전체를 아우르는 질병을 가리켜 조울

병이라 칭한다. 국제적 진단 기준에서는 양극성 장애 또는 양극성 정동장애라고 부르는데, 기분의 양극단을 포함하는 병이라는 뜻으로 조울병과 같은 말이다.

조울병 내에도 다양한 명칭으로 나뉘는데, 작가는 조증과 우울이 같은 시기에 나타나는 혼재성 양극성 장애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스스로 진단을 내리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보내는데 그것이 1장 ‘병 이야기’에서 모두 서술된다. 흔히 말하는 외향적인 사람으로서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고, 대학교에선 과내의 대표도 했으며 다수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감정 기록이 심한 편이었다. 여기에 대한 병이라 인지하지도 못할뿐더러 애초에 정신병 자체에 거부감이 컸던 그녀는 평범한 성격이라 치료하고 병을 방치한 채 삶을 지낸다.

조울병은 조증 상태에 접어들었을 땐 상승 고도에 있는 것과 같이 일의 능률이 오르고 집중이 잘 났던데려 기분이 고조된 채로 지내게 되니 자신이 병이 있다고 인지하지 못한다. 이 상승 고도가 있기에 조울병을 병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작가는 전했다.

이후 대기업 취직에 이어 동료들 사이에 신임을 얻는 위치까지 이어졌으나, 조울병이 심해져 감과 동시에 정신병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 정신과 의사 지팡이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조울병의 조증 단계였기에 순탄하게 지나갔으나, 이후 우울 단계에 진입하자 급격히 몰려오는 불안감과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 레지던트 생활 및 모든 인간관계를 끊게 되었다. 이를 작가는 ‘사회적 자살’이라 명명한다.

이후 2장에서는 조울병의 치료 과정에 관해 서술되어 있다. 책에선 조울병을

이겨낼 땐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남편 덕분에 자신의 병을 인정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자가 진단의 위험성을 언급하는데 우리는 감정에 대한 병을 가볍게 생각하며 ‘이쯤은 병도 아니다’라는 자가 진단을 자주 내린다. 또는 정신병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꺼려 병원을 찾지 않고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하지만 정신병은 마음의 병이 아닌 뇌에서 발생한 몸의 병임을 강조하며 위와 같은 행동은 더 큰 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임을 책에선 지적한다.

마지막 3장에서는 조울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이 병을 인정하기 힘들었던 것을 이야기하며 병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거리감을 줄이고, 그들을 이해하는 말이 적혀있다. 여기서 작가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데, 우울 상태에 있는 것은 마치 터널 안에 있는 것과 같다는 ‘터널 이론’을 언급하며 그 끝이 자살로 이어지지 않기를 강조한다.

이 책은 정신병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편견에 대한 허들을 낮추려고 하는 만큼, 읽는 내내 많은 문장이 정신병이란 단어 안에 갇혔던 편협한 시선들을 고쳐나가게끔 도와준다. 또한 우리의 사회가 정신병이란 단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문제점을 던져주며 독자에게 인식과 더불어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게끔 한다.

스트레스와 고민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 지금, 이 책을 읽으며 스스로에 대해 돌아켜보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더불어 따스한 위로로 받길 바란다.

이달의 영화—클라우스(Claus)



- 영화제목 : 클라우스(Claus)
- 영화감독 : 세르히오 파블로스

매섭게 다가온 추운 겨울, 온몸을 땀공 싸매고 길거리를 나서 보자. 들려오는 것은 경쾌하고 리듬감 있는 종소리와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흥겨운 캐럴곡. 보이는 것은 형형색색의 전구들이 비추는 밝은 거리와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물든 가게들이 눈에 꼭 박힐 것이다. 숫자 12가 적힌 달력만 보아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전 세계인들이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그날, 바로 크리스마스 그 자체에서 느껴지는 포근함과 기대감 그리고 설렘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이번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자체 단편 애니메이션 하나를 출시하였다. 그것이 바로 어린 시절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산타클로스의 기원을 다룬 작품 <클라우스>이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우편 사관학교의 낙제생 ‘제스퍼’는 하루하루를 편하게 살아가는 배정아와 같은 성격의 주인공이다. 게으르고 재주도 없는 제스퍼가 사관학교에서 쫓겨나지 않고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사관학교의

총재인 아버지의 지원 덕분. 그런 태평하고 낙천적이던 제스퍼에게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해 제스퍼의 아버지는 스미어 렌스 버그라는 지도 끝 고립된 마을로 그를 강제 발령시킨다. 1년 동안 6천 통의 편지를 배달하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포고와 함께. 살이 췌는 듯한 차가운 눈바람, 배를 타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섬, 그 속에 빛이 사라져 회색빛으로 물든 마을에 도착한 제스퍼에게 고생길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사람들은 따뜻한 피아를 이웃집과 나눠 돌리기보다는 어떻게 더 서로를 괴롭힐 수 있을까 생각하기 바빠기에 우편원은 제 기능을 못 한 지 오래되었다. 이러한 삭막한 마을에서 제스퍼는 무사히 편지 6천 통을 배달할 수 있을까?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클라우스>는 이러한 주인공 제스퍼의 성장 과정과 발전을 그리고 있다. 예외적으로 영화 속 숨은 주인공은 후에 등장하게 되는데 고난의 제스퍼를 도와주는 사람, 바로 산타클로스의 클라우스이다. 산타클로스의 기원 이야기를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산타클로스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키지 않고 서브 형식으로 출연 시켜 너무 과도한 분량을 차지하지도 않으면서 산타클로스의 신비감 또한 살려내는 전개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산타클로스 등장에 대한 색다른 부분이 또 있다면 우리가 평소 생각해 왔던 밝은 이미지를 줄이고 사연이 있는 애절한 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려내었다. 모두의 마음속 산타클로스는 인자하고 온화할 것 같은데, 영화 속 그의 모습은 까탈스럽고 외로운 사람으로 등장한다. 실제로 클라우스는 마음속 깊은 짐을 짊어지고 사는 고독한 목공수로, 그의 깊은 사연은 영화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클라우스>는 크리스마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주인공, 산타클로스의 기원을 재해석하여 애니메이션으로 탄생시켰다. 자칫하면 따분하고 지루한 고전 이야기로 치부될 수 있었음에도 감독 세르히오 파블로스는 2D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시각을 사로잡음과 동시에 이야기 또한 현실의 고증을 조금 첨가하여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들의 감동을 자극하였다. 영화를 보는 내내 왓시 모를 가슴속에서 안정감이 느껴지곤 하는데, 그것은 여태껏 다뤄져 왔던 애니메이션들과 다른 집감의 표현이 함유한다.

감독은 ‘영화가 여전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품질을 가지면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일 수 있도록 도구와 수단을 개발했다.’라고 언급하였는데 이 인터뷰를 통해 얼마나 그가 크리스마스 느낌을 내기 위해 노력했는지 엿볼 수 있다. 실제로 크레파스나 물감으로 그려낸 듯한 그림체 같기도 한 그림체는 생생하게 움직이기까지 한다. 많이 봐왔던 애니메이션들과 달리 눈에 띄는 특이한 그림체와 기법은 이목을 끌만하다. 이미 <클라우스>는 각 영화 비평가와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도 또한 큰 호감을 얻고 있다. 애니메이션 웹사이트인 애니메이트 아일랜드에서는 <클라우스>가 2D 애니메이션과 관련하여 미국 애니메이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을 전망하며 크게 평가하였다.

영화 <클라우스>만의 따뜻한 색감의 스케치 형식과 잔잔한 노래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슴 한 곳을 아려오는 먹먹한 이야기가 되었다. 올해 크리스마스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이따금 생각날 것 같은 영화 <클라우스>, 온 가족과 모여 행복한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애절한 영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넷플릭스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어느새 크리스마스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어떤 사람들은 연인과 달콤한 시간을 보낼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어떤 사람들은 이불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불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당신을 위해, 넷플릭스 추천작을 몇 가지 뽑아봤다.

#프렌즈(Friends)

모니카와 그녀의 친오빠 로스, 로스의 찬들러, 찬들러의 룸메이트인 조이, 그리고 피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뉴욕의 센트럴 퍼크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 갑자기 웨딩드레스를 입은 레이철이 나타나 모니카에게 자기가 결혼식 중 뛰쳐나왔더라 함께 살자고 한다. 그렇게 여섯 명의 우정 이야기가 시작된다.

1994년에 시작해서 2004년까지 NBC에서 방영되었던 미국의 시트콤 프렌즈는 총 236개의 에피소드로 뉴욕 맨해튼을 배경으로 여섯 명정과 삶을 다룬 코믹시트콤이다. 마지막 회의 시청자 수는 약 5천만 명 정도였으며 이때 30초짜리 광고는 당시로 약 2억 원이요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표주자이며, 미드로 하는 영어 공부의 교과서라고도 불린다.

부자집 철부지 소년였던 레이철 그녀는 센트럴파크에서 웨이트리스를 하다가 꿈에 그리던 류류 쪽에 취입하게 되고, 성공한 커리어우먼이 된다. 로스와 오랜 기간 연애를 해 엠마라는 딸도 갖게 된다. 아내의 동생이자 선연으로 이혼 후 두 번의 결혼을 하는 로스 겔러는 첫 번째 부인 사이에 벤이었고, 그들이 있었으며, 고교학우이다. 로스의 여동생이며 요리사인 모니카 겔러는 결핵증이 있으며, 승리욕이 매우 강하다.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한 체중이 많았지만 엄청난 다이어트의 결과 날씬한 몸매를 갖게 된다. 동생이자 아버지와 개방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찬들러 빙은 조이와 함께 살면서 나중에는 모니카와 결혼하게 된다. 가장 자유분방한 캐릭터이며 마사지사인 피비 부페이는 찬들러와 함께 드라마 중간중간 감초 역할을 하며 드라마의 분위기를 가볍고 즐겁게 만들어준다. 조이 트리비아니도 그런 재밌는 역할을 하는데, 먹는 것과 여자를 매우 좋아하며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의 배우이다. 이야기는 늘 모니카 집, 찬들러집 또는 센트럴파크에서 진행되며 오피니버스 형식이다.

많은 사람이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는 미드의 대표주자인 프렌즈. 정주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엄청난 에피소드 수와 시즌 10이라는 압박감이 있지만,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것이다.

#굿플레이스(The Good Place)

앞서 소개한 프렌즈와 같은 방송국인 NBC에서 제작 및 방영하는 시트콤이다.

적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죽으면 갈 수 있는 좋은 곳(the good place)과 나쁜 것을 한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나쁜 곳(the bad place)이 있다는 설정으로 만들어졌다.

욕을 할 수 없고, 술을 아무리 마셔도 숙취가 없는 굿 플레이스에서 주인공 엘리노어 셸스트롬은 눈을 뜨게 된다. 굿 플레이스의 설계자, 일종의 천사 같은 존재로 200년 동안 견습 생활을 거쳐 디더 자신만의 첫 번째 행성을 만든 마이클은 굿플레이스가 완벽하다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만족해한다. 마이클은 엘리노어에게 그녀의 생전모습을 설명해주며 그녀에게 완벽하게 알맞은 집과 소울메이트를 소개해준다. 엘리노어의 소울메이트는 치치 아나콘에. 치치는 윤리학 교수이다.

엘리노어와 치치가 만나자마자 엘리노어는 급하게 자신의 진실을 털어놓는다. 그녀는 마이클이 말했던 우크라이나 난민 캠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투전장의 불쌍한 개들을 구하고, 인신매매를 막으려 노력하는 인권변호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녀는 사실 술 모임에서 운전 당번이 되기 싫어 일부러 준비됐기를 조작하고, 환경운동가에게 고래 성애자라며 모욕하고, 친구의 옷을 망가뜨리고도 시치미를 떼는 그런 이 기괴하고 나쁜 사람이었다. 이런 사실을 알리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는 엘리노어를 강생시키기 위해 치치는 동생인 철학자와 윤리를 그녀에게 가르치게 된다.

한편 결빙기에도 완벽해 보이는 타하니 알자밀은 영국 상류층의 럭셔리한 사람이다. 런던 사교계의 대명사인 타니나는 늘 자신의 저택에서 화려한 파티를 준비한다. 지안유리는 묵인 수행 중인 대만의 수도승이다. 마이클의 말로는 8살 때부터 엄청난 수행을 쌓은 대단한 수도승이라고 한다. 이 둘 역시 치치와 엘리노어처럼 소울메이트였고, 또한 비밀을 갖고 있다.

재닛은 굿플레이스를 관리하는 존재이다. 인간보다는 인공지능에 가깝다. 편의상 겉모습은 성인 여성의 모습으로 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고,



▷사진출처 - AWARDS CIRCUIT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 굿플레이스를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능은 현실적으로 주민들을 도와준다. 엘리노어가 만약 진짜 엘리노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배드플레이스행. 엘리노어는 이 굿플레이스에서 과연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린치(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

마지막 추천 영화는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영화이다. 1957년의 60페이지 동화 ‘그린치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훔쳤는가 (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가 원작인 이 영화는 총 3번의 영화화가 됐다. 첫 번째로는 1994년 ‘인 서치 오브 닥터수스’는 동화 원작자의 이름을 딴 가족영화였고, 오직 아이들을 위한 작품이었다. 두 번째로 영화화된 것은 2000년, 짐캐리 주연의 영화로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겨냥했던 그린치(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이다. 북미에 엄청난 히트를 쳤으며 21세기 초에는 크리스마스 특선 영화로 엄청난게 자주 방영되었다고 한다. 이 작품으로 짐캐리는 2001년 아카데미상상 ‘분장상’의 주역이 되기도 했다. 세 번째로 영화화된 것은 2018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그린치(THE GRINCH)이다.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더빙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번에 소개할 버전은 두 번째 2000년, 짐캐리의 그린치이다. 크리스마सान 되면 축제가 펼쳐지는 마을에서 ‘그린치’는 홀로 외로운 혼자 산에 틀어박혀 사는 조금은 특별한 존재이다. 크리스마스를 싫어하고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마저도 싫어한다. ‘그린치’는 후 마을의 후죽들과는 전혀 다른 외모를

축 제·공 연 소 식



2019 산타런

- 기간 : ~2019. 12. 7(토)
- 장소 : 일산 킨텍스(KINTEX) 및 호수공원 일대
- 추천 : 5KM, 10KM



광명동굴 대한민국 와인 페스티벌

- 기간 : ~2019. 12. 15(일)
- 장소 : 광명동굴 라스코전시관
- 추천 : 광명시



대전 토도톨 페스티벌

- 기간 : ~2019. 12. 28(토)
- 장소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83
- 추천 : 대전광역시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 기간 : ~2020. 01. 05(일)
- 장소 :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 58-2
- 추천 : (사)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서면트리축제

- 기간 : ~2020. 01. 05(일)
- 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동천로 일대
- 추천 : 부산광역시



겨울왕국제천 페스티벌2020

- 기간 : ~2020. 01. 27(월)
- 장소 : 제천시 문화의 거리&제천 시내 전역
- 추천 : 제천문화재단



평창 송어 축제

- 기간 : ~2020. 02. 02(일)
- 장소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562
- 추천 : 평창 송어축제위원회

자료출처 : 넷플릭스, 구배영의 空間
김다경 기자
nojik4@gmail.com

한반도에 내린 크리스마스의 기적



▶ 마지막 수송선 '빅토리아호'

▷ 사진 출처 - 국가보훈처

12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인들의 전통행사로 자리 잡았다. 매년 소원을 빌면 산타클로스가 기적을 가져다준다는 희망은 74년 전, 한반도에도 찾아왔다.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은 한반도에 있어 있을 수 없는 아픔과 수많은 피해를 남겼다. 절망스러운 전쟁의 상황 속에서 나타난 기적은 갈 곳을 잃은 수많은 북한 피난민들을 태웠던 흥남철수작전이다.

'1950년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리는 흥남철수작전은 1950년 12월 12일부터 성탄절, 즉 크리스마스 전날인 12월 24일까지 12일간 진행된 철수 작전으로 군인 10만 명, 피난민 10만 명이 북한에서 귀환했다.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흥남 철수가 진행되었던 기간을 통틀어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부르고 있다.

한반도의 당시 상황

흥남철수작전 당시 전후 상황은 대강 이렇다. 1950년 6월 25일 북의 기습 남침으로 국군은 저항도 못 한 채 낙동강 이남으로 밀려났다. 이에 국군, 미군, 유엔군 등 연합군은 그해 9월 15일 맥아더 장군이 지휘한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북의 배후를 차단하고 낙동강 방어선을 넘어 반격을 시작했다. 그 결과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고

38도 선을 넘어 10월 19일 평양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38도 선을 넘어 도착한 북한 땅에는 전쟁과 전후를 피해 계곡과 동굴 속에 숨어 있던 주민이 넘어온 국군과 유엔군을 맞이했다. 그들 중 일부는 제공된 차량을 통해 함흥으로 추송되었으나 남은 일부는 끝까지 남아 아군 작전에 협조했다. 두만강 확보와 동시에 통일은 시간 문제라 생각했던 이들에게 갑작스러운 공격이 가해져 왔는데 그것이 바로 중공군의 개입이다.

중공군의 참전

일명 '괭과리 부대'라 불리는 중공군은 피리와 나팔을 불며 국군과 유엔군을 향해 수적으로 밀어붙이는 '인해전술'을 통해 빠른 속도로 남하했다. 중공군의 전술을 파악하지 못한 국군과 유엔군은 속수무책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 중공군의 작은 개입이 있었으나 그럼에 불구하고 중국이 6·25전쟁에 개입하지 못할 거라는 유엔의 판단으로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던 터라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순식간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북한 개마고원 고지대에 있던 미군과 국군이 수직인 열세와 매서운 추위로 전멸당할 위기에 처하자 결국 유엔군 사령부는 6·25전쟁 발발 해인 1950년 12월 8일



▶북한을 떠나는 피난민들

▷ 사진 출처 - 국가보훈처

동부전선 전 병력에 철수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진호 전투와 흥남철수작전이 펼쳐졌다. 퇴로가 막힌 그들에게 남은 곳은 흥남과 함흥 일대로 향하는 철수였다. 그렇게 유엔군의 개입은 전 국토 90%를 확보하고 중국 국경을 넘겨준 채 71일 만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전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모두의 바람과 달리 기회는 사라지고 말았다.

당시 피난민들의 상황

중공군의 개입 사실은 곧 민간인에게도 알려졌다. 이에 대부분의 북한 주민을 포함한 반공주의자들은 남한으로 내려갈 준비를 했다. 북한의 정치체제에 반감을 산 수직으로 밀어붙이는 '인해전술'을 통해 고향에 이 이상 북한 땅에 남아있을 수 없었던 이유도 컸다. 이 당시에 집을 떠나면서 곧바로 돌아올 거란 생각을 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지만 이들은 이후로 북한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피난민들은 이렇듯 전쟁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도 모른 채 집을 쫓겨 군인들이 움직이는 대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대로 그들을 따라서 자연히 성진 항과 함남의 서호진 항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이에 피난민들과 군부대의 작은 충돌이 있었다. 흥남 철수는 본 목적이 유엔군

과 국군 그리고 전쟁 물품들을 철수시키는 것이지만 민간인들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부대는 피난민들을 격리·통제하였으나 피난민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흥남 부근에 이를수록 피난민의 숫자는 더없이 크게 불어났다. 당시 주민들 사이에 한 사람은 유엔군이 후퇴하자 수북지구의 주민들도 군인들과 함께 남하하기 위해 흥남으로 몰려들었으며 시가지는 온통 피난민들로 뒤덮였고 말했다. 피난민들의 숫자는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대략 30만 명 이상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국군들의 설득, 김백일 장군

당시 한국의 정세를 잘 몰랐던 미군과 유엔군은 북한 주민이 왜 피난선에 탑승하려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형편이 따라주지 못했다. 배에 탑승하려면 부대는 미 제10군단 속이었고 그들에게는 능동적으로 전쟁을 지휘해나갈 능력은 없었다. 10만 명의 병력과 장비를 탑승하고 수송하는 문제만으로도 여념이 없는 상황에 갑작스러운 피난민들이 몰려드는 것은 예상 밖의 일이었다.

특히 미군, 유엔군과 함께 철수를 명령받은 국군에게 있어서도 피난민들을 두고 간다는 것은 비통한 일이었다. 군사적인

철수 작전만으로도 박찬 그들에게 함부로 국군이 나설 수도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북한 피난민들을 배에 태울 수 있었던 이유는 흥남철수작전의 주역 국군 1군 단장 김백일(金白一)과 현봉학 박사가 있었기 덕분이었다.

김백일 장군은 일찍부터 피난민들을 배에 태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정일권 장군의 회고록에 나타난 흥남 철수 작전 상황은 김백일 장군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회고록에 따르면 김백일 장군을 포함한 여러 국군 장군들은 피난민들을 배에 태우지 못하면 국군이 직접 배에서 내려 피난민들을 엄호하는 원산 돌과 강행을 대비하고 있을 정도로 그들의 피난민들을 향한 강경한 의지는 심금을 울렸다. 그리고 마침내 설득 끝에 배의 지휘장인 알몬드 장군을 설득에 성공했다. 알몬드 장군 또한 그들의 의지에 감동한 것이다.

함흥 출신 현봉학 박사의 간곡한 부탁

알몬드 장군이 피난민들을 태우는 것에 찬성한 이유로는 배후에 있던 현봉학 박사의 숨은 공로도 컸다. 영화 <국제시장> 첫 부분에 등장하여 피난민들을 바라보고 있는 알몬드 장군을 향해 끝없이 피난민들의 동정을 호소하는 한 젊은 청년이 나오는데 그 청년이 바로 현봉학 박사이다. 현봉학 박사는 민간인의 신분으로 미 제10군단의 통역 및 민사 담당 고문으로 있으면서 누구보다 더 피난민을 배에 태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평소 알몬드 장군과 친분이 있었고 현봉학 박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설득하기를 시도했고 그 결실은 '기적'을 만들어 내어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 특히 현봉학 박사의 고향은 함흥이었기에 그 의미가 더욱 컸다.

피난민들의 수용선 탑승

피난민들의 철수가 허락되고 난 후 처음 수용인원은 4천~5천만 명에 불과했다. 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었기에 불가피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았다. 군부대의 배가 출발하고 난 뒤의 3일 후인 12월 15일경, 부산 해군

본부로 전보를 띄운 지 1주일 만에 배 3척이 흥남 부두에 들어섰고, 일본으로부터 6~7척의 배 또한 급거 내항했다. 피난민들을 태우기 위한 지원함이 도착한 것이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 무섭게 피난민들은 배에 올라타기 바빴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약간의 희생이 발생하였지만 큰 피해는 없었다. 승선이 끝나는 대로 배는 출발하였고 배마다 수용인원을 넘어서 인원이 들어섰다. 한 배는 2천 명이 수용인원의 한계였지만 약 5천 명의 피난민들이 올라탔다. 말 그대로 배에 남은 공간이 있으면 사람들로 들어찼다. 마지막 배가 출항하는 날, 크리스마스 전날인 12월 24일을 끝으로 그렇게 피난민들을 가득 채운 배들은 28시간의 항해 끝인 부산을 향해 바다를 헤쳐 나갔다.

공식적인 통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10만 명의 피난민들이 배에 탑승했다. 유아가 포함되지 않은 점, 당시의 상황이 매우 혼란하여 인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과 밀려 들어오는 피난민들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적히 10만 명은 더 할 것으로 봤다. 안타깝게 배에 탑승하지 못한 피난민들도 많았다. 마지막 수송선인 빅토리아호를 타기 위해 쇠문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 헤어질 가족을 찾으며 울부짖다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었다.

세계적인 역사 속에서도 피난민들이 스스로 철수하는 사례는 잘 없었다. 흥남 철수는 그러한 점에서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정신을 보여주며 민족의식을 대변하고 있다. 그날 흥남 서호진 항에 있었던 모두에게 찾아온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아니었지만, 자칫하면 북한군과 중공군에게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10만 명의 목숨을 살렸다. 피난민들을 배에 태우기 위한 국군들의 간곡한 청이 없었다면, 현재 역사는 또 다른 길을 걷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숨은 공헌이 있었기에 '1950년 크리스마스의 기적' 또한 일어날 수 있었다.

자료출처 : 국가보훈처, 흥남철수작전 [국립중앙도서관 연계] 국가보훈처 발간자료
한여원 수습기자
hanyeowon0329@gmail.com



▶산타클로스가 작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확인하는 장면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이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념일이기도 하는데, 영어로 그리스도(Christ)의 미사(mass)의 의미한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와 루돌프를 연상하는 주제들이 많은데 크리스마스의 유래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크리스마스의 유래

『신약성서』에는 마리아의 처녀 회임으로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초기 그리스도 교도는 1월 1일, 1월 6일, 3월 27일 등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였는데, 교회로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지는 않았다. 3세기의 신학자 오리게네스는 크리스마스를 정하는 것은 이교적이라고 비난하였다.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로 고정되고, 본격적으로 축하하게 된 것은 교황 율리우스 1세(재위 337~352) 때이며, 동 세기말에는 그리스도도 국가 전체에서 이날에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게 되었다. 오랜 논의 끝에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로 고정된 것은 초기 교회 교부들의 제함과 영지에 의한 것이었다.

크리스마스트리의 유래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 큰 축제를 행하는 것은 고대 시대의 사회의 습관이었다. 그중에서도 요람가의 그리스도 교회가 개종을

원하였던 로마인이나 게르만인 사이에는 동지 제사가 성대하게 행하였는데 창고에는 수확된 곡물이 가득 차 있다. 목초가 부족한 겨울을 대비해서 도살한 가축의 고기도 충분히 저장되어 있다. 1년의 힘든 노동에서 해방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이 시기, 사람들은 이어서 찾아온 식량부족을 잊고, 먹고 마시는 성대한 축제를 행하였다. 생명의 은혜를 준 태양의 힘을 약화시키고, 겨울을 가져올 자연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공물을 바치고, 풍자·풍요를 기원해서 불을 피웠다. 온 세상의 초목이 매마를 때 푸르름을 유지하는 상록수는 영원한 생명의 상징으로서 장식되었다.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는 사투르날리아라고 불리는 농경신 사투르누스의 제사가 행하여졌다. 이 기간에는 집집마다 밝게 불이 켜지고, 상록수가 장식되었으며 선물도 교환되고 남자들은 여자의 의복이나 동물 가죽 등을 두르고, 보통은 금지되어 있던 행위가 행하였는데 주인과 노예가 자리를 교환하는 소동도 행하여졌다. 이와 같은 로마의 사투르날리아와 게르만의 올 축제와의 시기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로서 선택되었다. 교회는 기존의 제일을 가난한 한 이용할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콘스탄티누스 1세는 이보다 앞서 유사점이 많은 미트라스코의 습관을 고려, 321년에는 매우 휴일을 태양의 날(dies solis=sun day)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했다.



▷ 사진출처 - [하늘 향해 두팔벌린 나무들 같이] 블로그, [에밀리가 그랬어] 블로그

중세

597년, 캔터베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영국 전도를 개시했을 때, 크리스마스는 로마교회의 3대 축일의 하나가 되었다. 그는 이듬해 크리스마스에 1만 명 이상의 앵글로 색슨 인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한다. 약 1세기 후, 메다는 이날이 원래 '여미니의 밤'이라고 불리며, 여미니인 여신의 축일이었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개종해도 관대한 교회의 자비에 의해서 죄 없는 이교의 축제를 즐겼던 것이다. 그들은 상록수로 장식하고 올의 통나무를 태우고, 가면극이나 주술적인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이런 관습은 중세 말까지 남아 있었다. 알프레드 대왕은 크리스마스에서 공현제까지를 성스러운 기간으로 정하고, 노동을 금하였는데 왕이 878년 대인에게 일시적으로 패배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위의 기간이 성스러운 기간으로 정해진 것은 567년의 투르(Tours) 공의회에서이다. 앵글로 색슨인의 그리스도교화는 대인인의 침략에 의해서 지체하거나 후퇴하였는데, <노르망 콘퀘스트>까지에는 거의 완성되었다. 이런 관습은 중세 말까지 남아 있었다. 알프레드 대왕은 크리스마스에서 공현제까지를 성스러운 기간으로 정하고, 노동을 금하였는데 왕이 878년 대인에게 일시적으로 패배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한다.

종교개혁 이후

헨리 8세, 엘리자베스 1세의 시대에도 크리스마스는 잉글랜드 교회의 3대 축일의 하나로서 축하되었다. 당시의 문학작품 등에 의하면 크리스마스는 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시간, 진정한 기쁨의 시간, 친구·친척과 정을 돈독히 하고, 가난한 이웃을 환대하는 시간이었다. 이 시대는 궁정 생활의 화려함에 비해서 지방에서는 빈부의 차이가 심화되어 과거의 인간관계가 붕괴되기 시작한 시대였다. 크리스마스는 가난한 이웃을 환대하라는 문구가 저술가들에게 특히 강조되었다. 엘리자베스 1세, 제임스 1세는 고향 사람들을 환대하도록 크리스마스에는 신하들을 귀성시켰다. 지방자치체는 귀족·넌블리에게 이 환대를 의무 지웠는데 특히 흉작일 때는 그것이 지방의 치안 유지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1627년의 크리스마스에 추밀원은 런던 주교에게 영국에 망명해온 프랑스의 신교도 구제를 위해서 주교구 전체에서 기부금을 모으도록 명령하고, 크리스마스 정신을 간청했다.

퓨리탄 혁명 시대

왕당파와 영국 교회는 즐거운 전통적 습관을 상징하는 날로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했다. 그러나 근엄한 퓨리탄은 이 날을 로마 가톨릭의 축일로서 비난하고, 폭음 폭식, 댄스, 도박, 대소동 등 악으로 연결되는 축제로서 공격했다. 이미 『제약의 해

부』(1583)의 저자 P. 스터 버스는 극장·연극을 비방하고, 가면극을 가장해서 도둑, 매음, 살인 등이 크리스마스처럼 행해지는 시기는 없다고 기술하였다. 17세기의 어느 퓨리탄은 <그리스마스는 주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바쿠스 신의 축제이다. 이교도는 이를 보고 예수는 탐식한 행락주의자, 음주가, 악마의 친구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한탄하였다. 온건파는 지나친 행동을 시정하는 데 그쳤다. 장기 의회도 크리스마스에 간섭할 마음을 없앴다. 그런데 1644년, 그들은 스코틀랜드의 장로파 교회의 압력에 의해서 태도 결정이 강요되었다. 장로 파는 1583년, 스코틀랜드에서 크리스마스를 완전히 금지하였다. 그 후 왕의 명령으로 한때 부활하였지만, 다시 크리스마스를 금지하였다. 의회파의 지도자들은 장로파의 크리스마스 금지 요구를 잉글랜드에서 실시할 것을 거부하였지만 곧 굴복하였는데 그것은 의회파가 지배하는 지역에서도 효과를 거두었다. 1647년, 의회 파는 크리스마스 금지 법안을 가결하고자 하였다. 이때 이에 반대하는 폭동이 각지에서 일어나 마침내 가정에서의 크리스마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왕정복고(1660) 이후

크리스마스는 다시 교회의 3대 축일의 하나가 되고, 사람들은 이를 자유롭게 축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 경제상의 변화는 과거에 시골의 지주지택에서 확산된 전통적 크리스마스의 모양을 바꾸어서, 소박한 사람들의 소동도 폐지하고, 종교상도 희박해지게 되었다. 이 변화는 전천히, 불균등하게 진행하였다. 크리스마스 휴일이 제정되고, 대학, 학교, 재판소, 의회는 크리스마스에서 공현제까지를 휴일로 하고, 관공청은 이 기간의 일수를, 다양한 부서는 그 일부를 휴일로 하였으며 일부 사람들은 성축제(2월 2일)까지를 크리스마스로 생각했다. 19세기에는 산업혁명의 여파로 노동조건이 매우 가혹해져 크리스마스 휴일은 당일만 되었다. 크리스마스는 부유한 가정에서는 화려하게 축하되었으나, 일반적으로는 이를 축하할 비용이 없는 사람들이 증대하여, 크리스마스는 결국 사멸할 것으로 보였다.

빅토리아 시대

19세기 중엽, 크리스마스가 부활하였다. 그것은 처치스트운동의 시대로, 대영제국의 위광이 가장 확대된 시기였다. 새로운 크리스마스에서는 이웃사랑, 자선이 중시되고, 종교심의 부활에 의한 종교적 측면의 보장이 행하여지고, 그 위에 과거의 화려한 축제에 대한 회의를 버렸다. 특히 크리스마스가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축제가 된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다.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카드가 도입되고, 크리스마스 캐럴이 부활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크리스마스 정찬(디너)이 서민 가정에 전승하였는데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새로운 크리스마스의 성립에 크게 기여한 것은 빅토리아 여왕의 부군 앨버트 공과 C. 디킨슨이다. 앨버트 공은 독일에서 크리스마스트리의 습관을 원저 성의 가정 크리스마스에 도입하고, 디킨슨은 『크리스마스 캐럴』을 비롯해 몇 가지 문학작품을 공간하여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전하고, 동시에 크리스마스의 존재 모습, 물질적 즐거움을 향유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자신 등의 의무를 가르쳤다.

새로운 크리스마스는 급속히 침투하여, 공론가나 반대론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교도도 어린이들이 친구들의 즐거움의 틀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의 예배당의 일부는 회원이 국교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한 것을 보고 크리스마스 예배를 개시하였다. 이렇게 해서 비국교도의 태도도 연화하여, 영국 국민이 새로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에 의해서 단축된 크리스마스 휴일로 북성의 날(Boxing Day, 크리스마스의 다음 날로 이날에 사용인이나 우편배달부 등에게 축하 선물을 준다)까지 연장하게 되었다. 그것은 은행, 관청만이 아니라 19세기 말까지는 일반 상공업 종사자에게도 확대되었다. 여기에서 모두가 함께 축하하는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성립된 것이다.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조은빛 수습기자
dmsqlc111@gmail.com

■ 인천 마이스커리어페어 대상 수상자 인터뷰-관광학부 이벤트 컨벤션 전공 김진일 학생

■ 동서대학보 차기 편집국장 인터뷰-광고홍보학과 김태향 학생

한일 관광 문제 해결할 ‘다크 투어리즘’ 개발

대상을 거머쥔 동서대 재학생들



▶ 인천광역시·외교부 주최 '2019 국제기구-MICE 커리어 페어'



▶ 동서대 관광학부 이벤트 컨벤션학 전공 3학년 김진일 학생

지난 9월 27일, '2019 국제기구-MICE 커리어 페어'에서 3학년 김진일(팀장), 권하정, 전승기, 조은지 학생이 대상을 받았다. 이들은 최근 한일 양국 간 여행객 감소로 인한 관광 산업의 문제에 대해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이라는 주제의 여행상품을 기획해 많은 이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켰다. 대상을 받기까지의 험난한 여정에 관해 팀장 김진일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Q. 안녕하세요.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반갑습니다. 저는 동서대학교 이벤트컨벤션학 전공에 재학 중인 3학년 김진일이라고 합니다.

Q. 이번 마이스 커리어 페어에서 대상 수상하신 점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선 마이스커리어페어가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A. 마이스 커리어 페어는 외교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말아서 인천에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Q. 마이스 커리어 페어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A. 3학년 1학기 때 임경환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여행사 경영론이라는 캡스톤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MICF를 통해 유입되는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 코스를 만드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저는 일본인들을 타깃으로 코스를 만들고 중강을 했습니다. 그 후 방학 때 임경환 교수님께서 제가 캡스톤 수업 때 만들었던 코스를 기반으로 좀 더 수정해서 공모전에 한번 나가보자는 제안을 하였고 좋은 취지로 좋은 코스를 제안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공모전에 나가게 됐습니다.

Q. 대상을 받으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A. 직접 인천에 가서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좋은 경합을 한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생각이 컸는데 수상 발표를 할

때쯤 되니까 대상이 너무 받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받게 되어서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Q. 훌륭한 작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양국 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됐고 불매운동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일본과의 오랫동안 지속된 역사적 갈등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의 다크 투어리즘 관광 상품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일본인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제공하고 스스로 반성을 유도해서 관계 완화와 정치적 갈등의 해결책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제안했습니다.

Q. 대상을 받게 된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임경환 교수님의 끊임없는 피드백과 조언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캐치해서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벤트 컨벤션 전공의 특성상 많은 발표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별림 없이 저희의 상품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했던 것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Q. 마이스 커리어 페어에 참가하면서 겪은 어려움이나 힘든 점이 있었나요?

A. 아무래도 발표가 인천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직접 인천을 가야 했습니다. 오전 8시까지 송도 컨벤시아에 도착해야 했는데 그 전날 일정이 오후 11시에 마쳐서 일정이 끝나고 심야 12시차를 타고 인천으로 한숨도 자지 않고 잤던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Q. 대상을 받으셨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이 남는다면?

A. 준비해 간 내용에 비해서 발표 시간이 짧게 정해져 있어서 말을 조금 서둘러야하고 빨리 말을 한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Q. 이벤트 컨벤션학과 3학년으로 재학

중이신데, 진로에 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아직 저의 진로를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지만 제 전공이 저와 잘 맞다고 생각되어서 관련된 직업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벤트 컨벤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배워갈 수 있니까 주저하지 말고 이벤트 컨벤션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Q. 학교생활 중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던 점은?

A. 지금 돌이켜 보았을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된 것은 관광학부 내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챌린지입니다. 저희 팀은 모든 경비를 지원 받아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작정 가서 인터넷 요청을 한 지역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저에게 도전 정신을 길러준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실패와 두려움의 감정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팀원들과 떨어져 혼자 나오게 된 적이 있었는데, 호텔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길이었기에 지나가는 시민에게 영어로 길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대만 시민은 영어로 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셨지만 저는 영어 실력의 부족으로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헤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 한국으로 돌아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 미국 SAP에 최종 합격하게 되어서 1월 말에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모전과 프로젝트를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많은 공모전에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추천해 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다들!

김수영 수습기자
tndud1326@gmail.com

동서대학보 차기 편집국장 김태향 학생

새로운 변화에 한 걸음을 내딛다



▶ 차기 편집국장 김태향 학생



▶ 행사에 참여중인 김태향 학생

광고홍보학과에 재학 중인 김태향 씨는 현재 동서대학교의 신문을 책임지는 '동서대학보'의 부국장이자 차기 편집국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0년부터 편집국장으로 일하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계획 및 심정을 들어보고자 한다.

Q.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현재 동서대학교의 신문사, 동서대학보 부국장을 맡고 있는 광고홍보학과 김태향입니다. 차기 2020년도 신문사 편집국장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Q. 동서대 신문사의 편집국장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아직 편집국장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감 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국장이 되기 위해 인수인계를 하나 둘 받다 보니 '내가 진짜 국장이 되는구나' 걱정 반, 설렘 반입니다. 혹시나 작은 실수로 신문사에 큰 피해를 끼치면 어떡하나 벌써부터 긴장되지만, 제대로 배우고 준비하여 국장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신문사를 이끌어가고도 하겠습니다.

Q. 신문사에 처음 지원했을 때,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A. 저는 신문사에 조금 늦게 들어온 편인데요. 늦은 만큼 제 열정으로 신문사가 불타버리고, 다 뿌려져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해야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계기라는 게 사실 딱히 없어요. 신문사의 수습기자 모집공고를 보고 "와 저건 내가 해야겠는데?"라는 생각과 동시에 운명을 느껴 무작정 신청하고, 면접을 보아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식 수습기자가 되자마자 신문사 국장까지 하고 졸업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노력한 것이 저를 성장시키지 않았나 싶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Q. 신입이었던 시절 남다른 에피소드가

있다면?

A. 수습기자일 때는 정말 무난하게 기자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수도 없었고 정해진 역할을 잘 했다고 할까요? (웃음)

Q. 편집국장이 된 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A. 저희 신문사를 교내의 많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대내적으로 알리고 싶습니다.

신문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신문 자체에도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저희 학교의 학생 수는 2만여 명이 되는데 신문은 3천 부를 발간합니다. 하지만 매달 발행된 새 신문을 배달하러 가면 저번 달 호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남은 신문들을 처리할 때마다 소중한 내 아가들이 버려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신문사가 좀 더 성장하고, 알려져 신문의 독자 수도 함께 증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이것만큼은 지키고 싶다 하는 신문의 전통이 있을까요?

A. 신문사에서는 학기 말에 시간이 되는 기자들과 함께 신문사 대청소 후 거한 식사(회식)를 하는데요. 빠지는 기자분들도 있지만 저는 다 함께 모여 담소를 나누는 이 시간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선후배가 되어 학교생활의 유용한 정보를 나눌 수도 있고, 학기를 마무리하며 다음 신문사 운영에 대한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대화 나위 없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장이 되어도 이 시간은 꼭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Q. 반대로 이젠 개선해나가고 싶다 하는 점이 있을까요?

A. 아무래도 소속 기자들의 신문사 공간 활용을 개선했으면 하는데요. 지금 이 기사를 읽고 있는 독자들을 위해 설명해드리자면 신문사는 체를 듣는 대강당 입구 바로 옆, 높은 계단을 오르면 있는 숨겨진 장소입니다. 조금은 외진 곳에 있

는 감이 있긴 하지만 기자들이 이 공간을 활용하지 않아서 정말 아쉽습니다. 신문사의 기자로서 신문사 내를 좀 더 채워주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신문사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새로이 지원할 신입에게 신문사를 소개한다면?

A. 신문사는 교내 소식과 다양한 사회문화적 관심사를 지면으로 다루어 대학인으로서 갖춰야 할 교양과 지식을 전달하는 캠퍼스의 언론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대학 내의 소식, 취업·글로벌 정보, 사회·문화적 시사 상식, 그 외 대중적으로 떠오르는 트렌디한 이슈들을 기획하여 교내 학생들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축제나 공연, 공모전 정보 등 많은 것들을 소개해 주는 신문(新聞)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2020년도 신문사 기자에 도전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Q. 현재 신문사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응원 한 마디!

A. 제가 편집국장으로서 신문사의 대표가 되었지만, '저 혼자서 노력하고 전체를 이끌어 가야 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자 개개인이 신문사의 일원으로서 모두가 함께 열의를 가지고 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두의 노력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졸업하시는 기자분들도 있지만 2020년도는 다들 결속력을 지니고 재밌게, 신나게 생활합니다. 신문사 파이팅!!

Q. 마지막으로 국장으로서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번 164호를 끝으로 2019년의 신문과 작별 인사를 하고 2020년 신문사와 새로운 만남을 합니다. '안녕'의 뜻대로 아무 탈 없이 편안할 수 있는 신문사를 만들고, 신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정 수습기자
hyujk369@gmail.com

이달의 성경 속 인물 - 동방박사



▶ 몰약, 황금, 유향을 전해주는 동방박사들

▷ 사진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몰약과 유향과 황금을 여러분도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동쪽에서부터 온 이방 출신 현인(賢人). 혹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마 2:

1, 2, 7, 9, 10). 여기서 '동방'은 바벨론이나 바사 혹은 아라비아로 추정되고 있다. 그 지역들은 별을 연구하는 전문

학, 점성술이 특히 발달된 곳이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동방을 신비로운 곳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때 동방 박사들 역시 점성술이나 점, 해몽 등에 능한 자들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숫자에 대해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나 이들이 가져온 선물이 세 가지인 것으로 볼 때 세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승에 의하면, 이들 세 사람은 '멜 카이' (Melchior), '바사 사르' (Balthasar), '카스파' (Caspar)이며, 아기 예수를 만난 오랜 후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로 부터 세례를 받았으며, 유폴은 세인트헬레나에서 콘스탄티노플의 성 소피아 사원으로 운구 된 뒤 다시 밀라노 거쳐 쾰른 대성당에 안치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그 진위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이들은 베들레헴의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으며, 그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그러나 이곳의 왕 헤로데는 이를 자신을 몰아낼 새로운 왕이 난 것으로 받아들여 매우 당황한다. 왕은 신

하들에게 물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기로 예언된 것을 알았고, 이에 자신도 경배하러 찾아가겠다는 명목으로 동방박사들에게 태어난 아기를 찾게 한다.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다시 떠오른 별을 보고 아기 예수와 그의 모친 마리아를 찾아낸다. 아기에게 경배하고 자신들의 보물인 황금, 유향, 몰약을 바친 뒤, 그들은 꿈의 지시를 받아 헤로데를 만나지 않고 바로 고국으로 돌아간다.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안 헤로데가 그 시기에 태어난 베들레헴 안의 사내아이를 다 죽이지만,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와 요셉의 성 요셉은 미리 알고 이집트로 피신해 있었다는 후일담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는 그가 동방에서 들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1명씩 들어가서 예수를 경배할 때 각각 저와 비슷한 나이의 예수를 만났으며, 셋이서 함께 들어갔을 때는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 예수는 그들에게 공물을 받고 변치 않는 믿음의 상점으로 석유 검은 물을 대신 주었다. 하지

만 세 박사는 그 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나기로 예언된 것을 알았고, 이에 자신도 경배하러 찾아가겠다는 명목으로 동방박사들에게 태어난 아기를 찾게 한다.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다시 떠오른 별을 보고 아기 예수와 그의 모친 마리아를 찾아낸다. 아기에게 경배하고 자신들의 보물인 황금, 유향, 몰약을 바친 뒤, 그들은 꿈의 지시를 받아 헤로데를 만나지 않고 바로 고국으로 돌아간다.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안 헤로데가 그 시기에 태어난 베들레헴 안의 사내아이를 다 죽이지만,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와 요셉의 성 요셉은 미리 알고 이집트로 피신해 있었다는 후일담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는 그가 동방에서 들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1명씩 들어가서 예수를 경배할 때 각각 저와 비슷한 나이의 예수를 만났으며, 셋이서 함께 들어갔을 때는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 예수는 그들에게 공물을 받고 변치 않는 믿음의 상점으로 석유 검은 물을 대신 주었다. 하지

만 세 박사는 그 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나기로 예언된 것을 알았고, 이에 자신도 경배하러 찾아가겠다는 명목으로 동방박사들에게 태어난 아기를 찾게 한다.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다시 떠오른 별을 보고 아기 예수와 그의 모친 마리아를 찾아낸다. 아기에게 경배하고 자신들의 보물인 황금, 유향, 몰약을 바친 뒤, 그들은 꿈의 지시를 받아 헤로데를 만나지 않고 바로 고국으로 돌아간다.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안 헤로데가 그 시기에 태어난 베들레헴 안의 사내아이를 다 죽이지만,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와 요셉의 성 요셉은 미리 알고 이집트로 피신해 있었다는 후일담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는 그가 동방에서 들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1명씩 들어가서 예수를 경배할 때 각각 저와 비슷한 나이의 예수를 만났으며, 셋이서 함께 들어갔을 때는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 예수는 그들에게 공물을 받고 변치 않는 믿음의 상점으로 석유 검은 물을 대신 주었다. 하지

만 세 박사는 그 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나기로 예언된 것을 알았고, 이에 자신도 경배하러 찾아가겠다는 명목으로 동방박사들에게 태어난 아기를 찾게 한다.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다시 떠오른 별을 보고 아기 예수와 그의 모친 마리아를 찾아낸다. 아기에게 경배하고 자신들의 보물인 황금, 유향, 몰약을 바친 뒤, 그들은 꿈의 지시를 받아 헤로데를 만나지 않고 바로 고국으로 돌아간다.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안 헤로데가 그 시기에 태어난 베들레헴 안의 사내아이를 다 죽이지만,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와 요셉의 성 요셉은 미리 알고 이집트로 피신해 있었다는 후일담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는 그가 동방에서 들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1명씩 들어가서 예수를 경배할 때 각각 저와 비슷한 나이의 예수를 만났으며, 셋이서 함께 들어갔을 때는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 예수는 그들에게 공물을 받고 변치 않는 믿음의 상점으로 석유 검은 물을 대신 주었다. 하지

만 세 박사는 그 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나기로 예언된 것을 알았고, 이에 자신도 경배하러 찾아가겠다는 명목으로 동방박사들에게 태어난 아기를 찾게 한다.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다시 떠오른 별을 보고 아기 예수와 그의 모친 마리아를 찾아낸다. 아기에게 경배하고 자신들의 보물인 황금, 유향, 몰약을 바친 뒤, 그들은 꿈의 지시를 받아 헤로데를 만나지 않고 바로 고국으로 돌아간다.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안 헤로데가 그 시기에 태어난 베들레헴 안의 사내아이를 다 죽이지만,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와 요셉의 성 요셉은 미리 알고 이집트로 피신해 있었다는 후일담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는 그가 동방에서 들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1명씩 들어가서 예수를 경배할 때 각각 저와 비슷한 나이의 예수를 만났으며, 셋이서 함께 들어갔을 때는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 예수는 그들에게 공물을 받고 변치 않는 믿음의 상점으로 석유 검은 물을 대신 주었다. 하지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 원데이즈유헤프미 닥토판드 홍보 UCC 공모전!
- 접수기간 : ~2019. 12. 22. (월)
 - 공모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광고/아이디어, 마케팅, 사진/영상/U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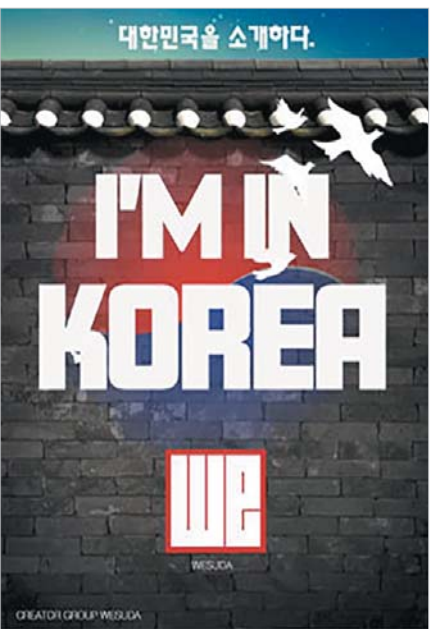
- 2020 IBK 부산경제봉사단 8기 모집
- 모집기간 : ~2019. 12. 24. (화)
 - 모집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 모집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 제1회 자유여행 플랫폼 모히지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
- 접수기간 : ~2019. 12. 27. (목)
 - 공모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 공모분야 : 광고/마케팅



- 제4회 파크랜드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
- 접수기간 : ~2019. 12. 29. (일)
 - 공모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 공모분야 : 광고/마케팅



- I'M IN KOREA
- 모집기간 : ~2019. 12. 31. (화)
 - 모집대상 : 일반인, 대학생/대학원생, 기타
 - 모집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 2020 대한민국안경디자인 공모전
- 접수기간 : ~2019. 12. 31. (화)
 - 공모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디자인/플래시



- 여행 in 런칭 이벤트·공모
- 접수기간 : ~2019. 12. 31. (화)
 - 공모대상 : 제한 없음
 - 공모분야 : 사진/영상/UCC, 문학/시나리오, 기타



- 2020 겨울 교육봉사 단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교사 모집
- 모집기간 : ~2020. 01. 02. (목)
 - 모집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 모집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봉사활동



- 제17회 KPR 대학생 PR 아이디어 공모전
- 접수기간 : ~2020. 01. 06. (화)
 - 공모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제10회 DB 금융경제 공모전
- 접수기간 : ~2020. 01. 11. (토)
 - 공모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KB금융그룹 X 데이콘] 금융 문자 분석 경진대회
- 개최기간 : ~2020. 01. 12. (일)
 - 접수대상 : 제한 없음
 - 개최분야 : 게임/소프트웨어



- 2020 KT&G 아시아 대학생 창업교류전(ASVF) 서포터즈 모집
- 모집기간 : ~2020. 02. 07. (금)
 - 모집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 모집분야 : 서포터즈

동서인의 센스 넘치는 N행시!

세 :

한 :

고 :

절 :



새해가 성큼 다가오는 12월, 우리는 모두 추운 겨울바람을 이겨내며 한 해를 드디어 마무리 짓게 된다. 겨울을 대표하는 사자성어인 ‘세한고절’은 추운 겨울에도 홀로 푸르른 대나무를 일컫는 말로 선비들의 고고한 지조와 절개를 뜻한다. 우리도 이 말처럼 아무리 추운 계절이 와도 쉽게 뜻을 굽히지 않는 절개를 가질 수 있기를!

예시) 세 : 세월이 흘러갈지라도

한 : 한 번의 침춘

고 : 고고하게

절 : 절망하지 않고 나아가리.

- 학번, 학과, 이름, 연락처를 써서 산학협력관 대강당 입구에 있는
신문사 건의함에 넣거나 010-4760-3385로 연락주세요
※ 12월 15일까지 퍼즐에 응모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두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당첨자 발표는 12월 18일에 개별 통보합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 학 과 : _____
· 학 년 : _____
· 이 름 : _____
· 연 락 처 : _____